

## 농촌병원 투석환자의 특성 및 문제점 (신장실 개설 첫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)

해남종합병원 내과, 인공신장실\*

양태영 · 위형중 · 허민\* · 박영태\* · 강경아\* · 황순덕\* · 조현경\*

**목적 및 방법** : 인구고령화로 투석환자의 많은 부분을 노인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, 노인이 많은 농촌 지역은 투석환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. 그래서 최근 농촌지역 준종합병원의 인공신장실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.

본 병원도 농촌지역의 준종합병원으로써 1년전 신장실을 개설하였으며, 현재까지의 본 병원의 상황, 환자의 구성, 응급투석(약물중독 포함), 3차병원으로 전원 이유 및 환자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신장실 개설 예정인 병원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시행하였다.

**결과** : 신장실 담당의료진은 내과전문의 2명(신장학회 회원), 간호사 3명, 응급구조사 1명이며, 투석기는 Phoenix 19대, 혈액여과기(혈액관류) 1대로 총 20대이고 이중 고효율 투석기는 3대에 설치하였다. 등록환자는 총 30명(평균연령 61.5세)이며, 26명은 타 병원에서 투석중 교통편리와 투석시간(오전을 선호) 때문에 전원되었으며, 4명은 본원에서 진단받았다. 응급투석은 총 26건이었으며, 폐부종 5건, 고칼륨혈증 3건, 급성신부전 5건, 약물중독(파라쿼트 등) 13건이었다. 3차병원으로 전원은 총 10건이었으며, 동정맥류 기능 부전이 9건, 폐렴 1건이었다. 투석 중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,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정맥류 기능부전시 3차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다. 기타 주변병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음식물 제공, 거동불편환자에게 차량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, 병절 및 연휴기간에는 고향을 찾는 환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석실을 이용한 환자가 3-4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.

**결론** : 만성 투석환자의 경우 투석 중 특별한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투석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, 혈관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동정맥류 기능부전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처치를 위해 3차병원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